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인터뷰]

“공사비 후려치기가 고효율 건축물 걸림돌”

기계설비 공사비 비중 급증 불구... 하도급관행, 중간마진 건축업체 가져가
건축물 질저하업체 도산 악순환... 법개정 통한 독립공사 인정 시급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터뷰 내내 현재 기계설비업계가 극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아니, 거의 초토화 수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친환경·고효율에너지시대를 가기 위해서도 협회와 관련한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건축물 공사에서 기계설비를 푸대접하는 시대를 넘어서야 진정한 건축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최근 만난 이상일(65)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

는 인터뷰 내내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시대를 가려면 협회가 변해야 하지만,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건축물 내부의 기계설비시설에 대한 푸대접이 수십년간 계속되면서 기계설비사업 단가가 후려쳐지고 있어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만 더 기계설비업계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업계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기계설비업은 건물 내부의 에어컨,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급수시설, 가스시설, 플랜트 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치를 통해 건물이 정상 가동될 수 있게 하는 사업 분야다. 딱딱한 도시 건물에 일종의 ‘숨’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건물이 대형화, 현대화되고 있는 오늘날 기계설비업의 중요성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계설비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건축물 중 컨벤션 등 전시시설은 전체 공사비의 25.7%가 기계설비 공사비로 쓰였고, 의료시설은 24.1%, 연구소는 23%, 대형청사는 20.3%가 각각 기계설비 공사비로 쓰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단순한 건축물인 아파트 역시 전체 공사비의 14.4%가 기계설비 공사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 공사비는 전문건설 25개 업종에서 공사비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2013년 전문건설 25개 업종 국내 공사실적 총 규모는 총 83조1422억원이었는데 이 중 기계설비 공사비가 14조2257억원(1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렇게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기계설비 공사비의 단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회장은 지적한다. 관행상 오랫동안 있어온 ‘가격 후려치기’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대의 건물 구축에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는 예정가격의 70~80%선에서 낙찰되는데 기계설비공사는 55%선에서 낙찰되고 있어 기계설비업계의 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 회장은 주장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계약법상 기계설비공사는 건축업체가 기계설비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중간 마진을 기계설비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축업체가 가져가다 보니 기계설비업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을 수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건축공사는 건축업체가 70~80%선에서 낙찰받아 직접 공사하고, 전기공사는 건축업체가 전기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전기업체가 애초에 직접 입찰에 참여해 예정가의 70~80% 선에서 낙찰받는 형식이어서 기계설비업계에 비하면 상황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기계설비 공사비가 적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단 기계설비 공사업체들의 도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또 값싼 자재로 기계설비가 시

공된 건물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기능상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건물 기능 저하는 곧 에너지 낭비로 귀결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기계설비업체 수는 6,985개. 이중 2013년 22개사가 부도처리됐고, 작년에는 23개사, 올해는 9월 현재 32개사 등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올해 들어서는 특히 기계설비 업계에서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려 대형업체로 꼽혔던 업체들마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에 따른 낮은 공사단가에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국내 기계설비업체가 공멸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공사단가가 낮다 보니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값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에너지가 줄줄 새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작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약 215조원 규모인데 기계설비 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만 약 30조원으로 신축된 새 건물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계설비 시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답이 정해져 있고 방법을 알면서도 관련법의 굴레에 속박돼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요즘 가장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최근 한두달전 도산에 따른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대형 기계설비업체 사장을 생각하면 회장직 임기 동안 반드시 뭔가 상황을 타개해야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기계설비업체가 망가지면 국내 건

설업체가 자랑하는 해외 플랜트 수주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거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 회장은 “정부와 건설사들이 한때 해외 플랜트 수주를 큰 자랑으로 여긴 적이 있는데 해외플랜트 공사가 다 국내 기계설비업체가 하는 일”이라며 “국내 기계설비업체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면 결국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플랜트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개선책은 기계설비공사도 전기공사처럼 건축업의 하도급이 아니라 어엿한 하나의 독립적인 공사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계설비 공사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할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할 하의 기계설비기준법을 신규입법하거나 현재의 에너지합리화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국토부가 아니라 산업부 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회장은 “지금 실정은 최소한 건설업 쪽에선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건축학 전공자들 밑에서 하도급을 받으며 일하는 형국”이라며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전기공학 전공자들처럼 산업부 관할 하에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기계설비분야 이대론 초토화 위기... 관할권, 국토부 → 산업부로 이관해야”

기계설비건설협회 법개정 주장



국토교통부(국토부) 관할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사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의 관할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분야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9월 8일 “기계설비는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에너지 비용을 고려한 통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전기설비와 같이 에너지 산업 정책을 소관하는 산업부에 속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일 회장은 “기계설비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할의 건설산업기본법 대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할의 기계설비기준법을 신규입법하거나 에너지합리화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이상 상황이 이대로 방치되면 기계설비업계 전체가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법률이 바뀌게 되면 협회는 현재의 국토부 관할 기관이 아니라 산업부 관할이 된다.

이 회장은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 등이 모두 건축공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 독립적 공사로 원도급이 가능한데 기계설비공사만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규정돼 있어 하도급 과정에서 단가가 다른 공사에 비해 20% 가량 더 낮춰져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기계설비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어 기계설비업계가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이나 플랜트 등에 급수,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를 통해 건물내부 온도 조절이나 온수 공급, 환기 등이 가능해져 건축물이나 산업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공사로 불리기도 한다.

기계설비건설협회가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관할권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이 방식이 업계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율적 조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굴레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건축공사를 수주하면 전문건설업체인 기계설비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기계설비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아야 한다. 종합건설업체는 예정가격의 70~80% 선에서 건축공사를 낙찰받는 반면, 기계설비업체는 70~80% 선에서 낙찰된 공사단가에서 다시 70~80% 낮춰진 가격에 낙찰받아야 해 실제로는 예정가격의 50% 선에 낙찰받게 된다. 낙찰가가 낮다 보니 건물의 심장 역할을 할 기계설비의 시공품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건물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수십년간 일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협회는 지난 26년간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올들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 이번에 강력히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건물서 에너지 年30조 샌다?… “질 낮은 부품 제도적 근절을”



막대한 물량의 기계설비가 투입되는 한 아파트 대규모 단지 공사 현장

지난해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약 215조원에 달한다.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는 냉난방(55%)과 급탕(16%) 등 기계설비 분야가 전체의 71%, 나머지 29%는 전기 분야가 차지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사용하는 연간 에너지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 규모에 달한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축물이 실제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건물에 에어컨 가동, 온수 공급 등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기계설비공사의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값싼 부품으로 시공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대부분의 건물들이 멋진 외관만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선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약 30조원에 달하는 건물의 기계설비 분야 소비 에너지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줄줄 새고 있다는 우려로 비화되는 것이다. 협회의 이 같은 우려는 실제로 건설업계에서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

지를 낭비 없이 쓰려면 고품질의 기계설비공사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설비공사가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 중 하나쯤으로 인식돼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 단가가 싸다보니 건물 내부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계설비들이 값싼 부품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계설비 품질을 높이려해도, 현재 구조상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이 버젓이 활개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가 건축공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하층 구조’로 인식돼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공사라는 게 원시적인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수도꼭지 시공 등에 불과해 건축공사의 하도급으로 문제될 게 없었지만 초고층빌딩이 즐비한 오늘날에는 건축공사와는 또 다른 고도의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 독립적 분야로 발전했다”며 “이에 맞춰 초현대식 건물 수준에 맞는 기계설비가 시공되려면 현재의 법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초고층빌딩 내부 기계설비가 저가 부품으로 시공됐고 상상해 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건물이 그런 식으로 시공되고 있어 어느 건축물이든 에너지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그 비용은 실로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